고쿠타니

구타니야키는 '구타니고사이'라고 불리는 초록, 노랑, 보라, 감청, 빨강의 5 가지 색을 사용한 대담한 문양과 광택이 특징인 도자기입니다.

그 역사는 두 시대로 나뉩니다. 1655 년경부터 1700 년대 말까지 제작된 구타니야키는 '고쿠타니'라고 불립니다. 마에다 가문이 고쿠타니 생산을 장려했으나, 가마가 폐쇄되면서 구타니야키 생산은 중단되었습니다. 약 100 년간의 공백을 거쳐 다시 구타니야키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구타니야키는 '재흥 구타니(사이코쿠타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고쿠타니는 현재 크게 2 가지 스타일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이로에'입니다. 5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고사이데'라고도 불립니다. 이로에에서는 바탕에 흰색을 약간 남겨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스타일인 '아오데'는 빨간색을 제외한 2~3 가지 색만을 사용하며, 그릇 표면을 완전히 채우는 디자인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배경은 노란색 바탕에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쿠타니는 생산규모가 작고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당시의 고쿠타니 작품은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그 스타일은 후대 도예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고쿠타니의 색채와 문양은 이시카와 도예 전통의 중심을 이루는 요소가 되었습니다.